

민주 '우상호 비대위' 출범... 과제는?

친명·비명 대치 속 전대 관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에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구성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총 투표자 452명 중 찬성 419명(92.7%), 반대 33명(7.3%)로 의결했다고 변재일 중앙위 의장은 전했다.

전체 중앙위원 625명 중 452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72.32%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위원회를 열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으로 한영애(3선 대표), 박재호(재선 대표), 이용우(초선 대표) 의원과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원외 대표), 당연직으로 박홍근 원내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여성·청년 몫 비대위원 3명도 조만간 비대위 논의를 거쳐 지명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주말새 비대위원들과 소통을 거쳐 13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우 위원장은 앞서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제35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후 기자회견과 만나 "이번주 중으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공식적인 회의체에서 주요한 결정을 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라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다음주 중에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우상호 비대위는 지난 3월 대선과



더불어민주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우상호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친명, 권리당원 확대... 비명, 국민 비율 확대 이번주 첫 회의서 본격 활동... 전준위 꾸리기로

6·1 지방선거 연패로 혼란스러운 당을 수습하고 세신을 위한 선거 평가 작업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 아울러 당권을 둘러싼 친이재명계(친명)와 친문 비이재명계(비명) 간 갈등을 이완하고,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차기 지도부에 비명을 넘길 때까지 당을 이끌 '관리형' 지도부의 중임을 맡고 있다.

4선 중진인 우상호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된 것은 연세대 총학생회장장과 전대협 1기 부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말형'으로 당내 인망이 높은 데다가, 친명과 친문 비명파도 두루 원만한 만큼 자칫 당을 두동강 낼 수 있는 계파갈등을 추스를 것이라는 당 안팎의 기대감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상호 비대위 앞에는 당당 전당대회 '불의 전쟁'이라는 과제가 놓여있다. 친명계에서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10%, 일반당원 5%의 비중으로 반영되는 현행 투표 비율에서 대의원 비중을 낮추고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요구를 한 상태다.

친명계의 주장에 대해 친문 비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당 일각과 소장파를 중심으로 대의원 비중을 낮추되 일반 국민 참여 비율을 높이는 제3의 주장도 나오는 형국이다.

아울러 친명계에서는 전당대회 투표권을 부여받는 권리당원 조건 완화를 주장하는 것도 보인다.

경선일 6개월 전 입당,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 납부하는 현행 조건을 3개월 당비 납부와 같이 변경하자는 것으로, 지난 3월 9일 대선 이후 민주당에 대해 입당한 '개발' 강성 지지층의 참여 문턱을 낮추자는 의도다.

반면 비명계에서는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불을 댕기면 여러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의원에 유리한 것이 예상되는 불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우상호 위원장은 전날 "전당대회 불을 변경하려면 조건이 있다"며 "전대에 출마할 선수들이 합의를 하든가, 아니면 당내 구성원의 60~70% 이상이 동의하는 내용이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인(왼쪽)과 김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의 구성과 업무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민생 살리기 약속 꼭 지킬 것”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인, 민선8기 인수위 구성 위원장에 김철수 전북도의원 등 15명 위원 선임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인이 13일 출범하는 민선 8기 정읍시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에 김철수 전북도위원을 부위원장에 김철모(전)익산시 부시장을 선임했다.

이 당선인은 10일 오후 2시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 첫걸음으로 민선과 민의를 살릴 수 있는 실무형으로 인수위를 꾸렸다"고 밝혔다.

각계에서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인수위는 13일부터 정읍시 시가동성당 골목에 위치한 청년창업헬린지속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인수위 위원으로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국광현(지역업) 위원이 선임되었고 시민사회 분야에 김미경(정읍시 여성체육회장) 위원, 보육 분야에 김선희(아동교육) 위원, 축산분야는 김순아((전)여성단체회장) 위원이 선임되었다.

또 청년농업 분야에 류호인 4대 회장, 교육/토목환경 분야에 박종근 전북과 학대 교수, 다문화/이주여성 분야에 원우희(지역업) 위원, 여성농업 분야

에 유금주 농업인 복지 분야에 이순자(전)의원, 소상공인 분야에 유승훈 중앙상가회장, 법조에 이영천(법무사) 위원, 체육 분야에 하재환(정읍시 야구협회장) 위원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문화 분야는 김철모 인수위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인수위 간사는 최도진(금융업) 위원이 맡는다. 이 당선인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원 위촉식을 갖고서 곧바로 3시부터는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5일까지 국 및 실패소 업무보고를 통해 현안 및 주요 업무를 청취한 뒤 이후에는 정읍시의 주요 현안과 우선 챙겨야 할 업무를 정리하는 한편 민선 8기 시정 구호와 시정방향을 확정 짓고 당선인 공약사항 등도 가다듬게 된다.

취임 후에는 읍면동을 찾아 방문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은 "민생부터 살리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 정읍시정이 안정적인로 시작하고, 정착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미래형 도시 완주 위한 '전진'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 민선8기 군수 인수위 출범

인수위원장에 송형수 전 전북도 테크노파크 원장

부위원장 최등원 전 완주군의회장 등 총 15명 위원 위촉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의 민선 8기 군정 밑그림을 그릴 '완주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0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완주군 심례읍 심례리에 있는 소설 굿즈혁신파크에서 진행된 이날 출범식은 유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등 15명의 인수위원, 김성명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기념 촬영, 인수위원 위촉, 인수위 운영일정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유 당선인은 이날 경제 전문가인 송형수 전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을 인수위 위원장에 임명했으며, 부위원장에 는 지역 현안과 사정을 두루 꿰뚫고 있는 군의회 최등원 전 의장을 선임하는 등 15명의 인수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송 위원장과 최 부위원장과 함께 이날 임명된 인수위원은 권도윤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실장, 김영기 완주군 노인회장, 소덕임 (사)한국국악협회 전북지회장, 홍성인 전북도의원, 심동택 전북지체장애연합회 완주군지회장, 손정아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총무국장, 고의정 전 전북도청

주무관 모진희 완주군 청령군민감사관, 엄호정 완주교육거버넌스 위원, 전효숙 완주군 새마을회 사무국장, 황성희 완주군 보훈단체 간사, 정명석 완주군 이장연합회장, 김인철 소양면 주민자치위원장 등이다.

유 당선인은 인사말에서 "지역주민을 잘 섬기고 주민께 약속드린 공약을 잘 행하기 위해 인수위 활동이 중요한 만큼 구성과 인선 과정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최적의 인사를 모시려고 노력했다"며 "미래 행복도시 완주군이 민선 8기 출범부터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군정 인수 업무를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당선인은 농민과 여성, 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 넓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 현안에 밝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했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송 전 전북 테크노파크 원장을 임명했다는 후문이다.

향후 4년간 완주군정 운영의 방향과 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 전반적인 밑그



지난 10일 완주군 심례읍 심례리에 있는 소설 굿즈혁신파크에서 완주군수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이 열렸다.

림을 그리게 될 인수위는 △기획조정분과 △행정복지분과 △경제산업분과 △건설안전분과 등 4개 분과를 두고 이달 30일까지 가동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각계각층의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만큼 민선 8기의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의 밑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4개 분과별로 유 당선인의 공약을 재점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통해 분과별 위원 배치를 논의한 후 이날 13일부터 23일 까지 열을 올린 완주군 각 부서별로 주요 현안과 업무, 공약사항 검토결과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완주군 각 부서는 유 당선인의 군정

방향을 담은 미래 행복도시 3대 비전과 5대 중점과제에 맞춰 핵심 현안과 주요 업무를 보고하게 된다.

송형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미래 행복도시 완주군을 지향하는 유 당선인의 철학과 원칙을 잘 반영해 오는 7월 1일 출범할 민선 8기 군정이 활발히 나갈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은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살고 싶은 미래형 도시 완주를 만들겠다는 13개 읍면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어 이번 인수위 활동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한덕수 총리 '코로나19 왜래 진료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로 통합

'원스톱 진료기관' 도 5000개 이상 확충키로

정부는 코로나19 외래진료체계를 재 정비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 후유증 대규모 조사에도 착수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금이 재 유행 대비의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이

로 의료 대응체계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코로나19 검사와 전화상 답(대면진료)을 하는 호흡기진료센터라니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확 진자를 대면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 등 각각 운영돼 혼란과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외래진료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다양한 코로나19 외래 진료기관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하여 안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5000개 이상 확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많은 분들이 롱 코비드(코로나 후유증)를 경험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미흡했다"며 후유증 체계적 조사 계획도 설명했다.

정부는 대규모를 대상으로 코로나 후유증의 원인과 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후유증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또 "방역 정책 수립시 전문가 분석과 견해가 존중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설치 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감염병 위기상황을 평가해 정책을 제안하고 이 제안을 정부는 방역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뉴시스



최경식 남원시장 당선인은 9일부터 10일까지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신성장, 문화관광, 교육의료복지, 경제농정, 행정 등 5개 분과위원회별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민선8기 남원시장 인수위 본격 가동

최경식 당선인, 신성장 등 5개 분과위원회별 정책간담회

오늘부터 5일간 공약사업 청취... 현장중심 업무 추진

최경식 남원시장 당선인은 9일부터 10일까지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신성장, 문화관광, 교육의료복지, 경제농정, 행정 등 5개 분과위원회별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인수위를 본격 가동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 당선인이 인수위원 및 남원시 담당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직접 분과별 공약 구상을 설명하였으며, 민선8기 공약사업과 관련된 남원시 검토사항을 청취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최 당선인은 13일부터 17일까지 인수위원회와 함께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및 민선8기 공약사업을 청취하고 주요 사업장을 둘러보며 폭넓은 의견교환과 현장중심 업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선인이 직접 시 조직과 예산 및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인사로드맵 마련과 정부 정책기조에 맞는 사업발굴 등 남원시의 시급한 현안 해결방안 마련 대책을 주문하는 한편, 공직자와 시민이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기자